‘팔만대장경 복각 불사’ 대장정 오르다

해인사 ‘팔만대장경 복각 교육’ 고불식

6월 14일 합천 판각학교서
일반 대중 100여 명 참여해
전통 각법 교육 불사 동참

합천=성낙두 경남지사장

‘팔만대장경’ 복각 불사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가 설립한 (사)해인사 장경도감(이사장 혜일 스님)은 6월 14일 합천 해인사 판각학교에서 ‘팔만대장경 복각을 위한 전통 각법 교육 고불식’을 봉행했다. 해인사는 이날 고불식을 통해 전통 각법 교육을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대하고, ‘팔만대장경 복각 불사’의 본격적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해인사 장경도감 이사장), 팔만대장경연구소장 경암 스님, 판각학교장 진각 스님, 안준영 각자장 등 강사진과 교육생을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고불식은 해인사 포교국장 도융 스님의 사회로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헌향·헌다·헌화 △고불문 △환영사 △치사 △강사진 소개 △각자장 인사 △교육과정 안내 △사홍서원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경암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판각 교육은 인류의 고통과 분쟁을 넘어 지혜의 길을 밝히는 수행”이라며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을 다해 불법의 길을 다시 세상에 펼치겠다”고 서원했다.

진각 스님은 환영사에서 “판각 교육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한 불사”라며 “여러분 손끝에서 새겨질 글자들이 과거와 미래를 잇는 지혜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보종찰 해인사 장경도감은 6월 14일 해인사 판각학교에서 ‘팔만대장경 복각을 위한 전통 각법 교육 고불식’을 봉행했다.

혜일 스님은 치사에서 “팔만대장경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법으로 나라를 지켜낸 상징”이라며 “오늘날 핵 위협, 인공지능, 기후 위기 같은 새로운 위기 속에서 복각은 인류 전체 안녕을 위한 수행이자 불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전통 화각 교육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라고 덧붙였다.

안준영 각자장은 “각수는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며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듯 한 자 한 자 정성을 담아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안 각자장은 초조대장경 복원(2009), 삼국유사 초기본 복원, 프랑스 동서 인쇄 과정 시연, 해인사 등록판 고발(2019) 등 다양한 문화재 복원에 참여해 왔다. 교육 강사진으로는 김상욱·안은주 강사 등이 함께한다.

교육생 100명은 전통 각법의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배우며, 선조들의 수행 정신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대부분 “판각 교육은 수행이며 서원”이라는 뜻을 밝히며 지극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서원했다.

세종의 꿈, 무위사서 다시 피어나다

지역 불교人 강진 무위사 주지 법오 스님

세종 발원 담은 국보 극락보전
민생 안정 위해 수륙재 설행키도
8년간 수륙재 봉행…발원 계승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 추진도

“무차수륙대재는 참회와 평화를 향한 세종대왕의 발원입니다.”

전남 강진 월출산 자락에 위치한 무위사는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의 발원이 담긴 천년고찰이다.

국보 극락보전을 비롯해 아미타삼존불, 후불탱화, 벽화, 관세음보살상 등 지정문화유산이 다수 보존돼 있어, 법당 전체가 살아 있는 불교문화유산으로 전해진다.

무위사 주지 법오 스님은 이 도량에서 매년 ‘무차수륙대재’를 봉행하며, 세종대왕이 남긴 자비 정신을 현대에 계승하고 있다. 스님은 “수륙대재는 죽은 자와 산 자 모두를 위로하고 교화하는 자비의례”라며 “세종대왕이 형 효령대군을 통해 극락보전을 세우고, 조선 건국의 원죄를 참회하며 백성의 평안을 발원한 것이 그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무위사의 극락보전은 단순한 법당이 아니다. 세종은 조선 건국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과 원한을 참회하고, 불교의 자비를 통해 민생 안정을 염원하며 이 의식을 시작했다. 유학자들의 반발 속에서도 세종은 불교의 수륙재를 택했고, 그 전각이 바로 극락보전이었다. 효령대군이 직접 ‘지우(知友)’로 참여해 감독한 극락보전은 왕실의 원력과 불심이 결합된 상징적 공간이다.

법오 스님은 “무차수륙대재는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구제하겠다는 부처님의 서원”이라며 “죽은 자에겐 해탈을, 산 자에겐 복덕과 지혜를 전하는 회향의 법회”라고 강조했다.

지난 8년간 매년 봉행된 무위사 수륙대재는 지금은 지역민과 불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무위사는 최근 극락보전 해체보수에 나섰다. 600여 년의 세월로 구조가 기울고, 벽화와 불상이 훼손돼 더는 보수를 미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법오 스님은 관련 분야 전문가 20여 명과 함께 2년 이상 자문을 거쳤으며, 앞으로 6~7년간 보수 공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초부터 단청, 벽화, 불상 보호까지 세심하고 정밀한 복원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스님은 “무위사는 고려시대 건축양식이 살아 있는 몇 안 되는 법당”이라며 “극락보전이 온전히 복원되어야 수륙대재의 정신도 온전히 되살아난다”고 강조했다.

법오 스님은 ‘무차수륙대재’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도 추진 중이다.

스님은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는 쉽지 않지만, 이 전통의 복원이 곧 조선 불교의 복원이자 한국 불교의 정통성 회복”이라고 말했다.

무위사는 세종대왕과 연관된 이야기, 풍부한 성보유산을 토대로 문화해설 활동과 템플스테이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방문객들에게 극락보전과 수륙대재의 의미, 세종의 발원 등을 전하며 불교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종의 꿈’을 주제로 한 창작 뮤지컬이 성황리에 공연됐다. 오는 10월 18일에도 무위사 수륙대재와 함께 뮤지컬이 다시 무대에 오른다.

작품은 세종과 소헌왕후의 이야기, 극락보전 창건 배경 등을 극적으로 그려낸다. 극 중 “전라남도 강진 무위사에서 내 사랑하는 소헌왕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백성의 안녕을 비는 도량을 세우노라”는 세종대왕의 대사는 스님이 강조하는 무위사의 정체성을 함축한다.

법오 스님은 “이제 수륙대재는 단순한 의식을 넘어, 세종의 참회와 평화를 계승하는 국민적 문화행사가 되어야 한다”며 “세종의 꿈은 과거의 이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 무위사에서 살아 숨 쉬는 실천이며, 앞으로도 화합과 평화를 향한 여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무위사 주지 법오 스님이 극락보전을 설명하고 있다.

수녀회 후원 요청에 문빈정사 대중 나섰다

법공 스님 등 봉사자들
‘찾아가는 고기 특공대’



광주 문빈정사(주지 법공 스님)와 (사)자비신행회(상임이사 김삼옥)는 6월 12일 광주 남구 성요셉사랑의 식당에서 ‘찾아가는 고기 특공대’ 삼겹살 나눔 행사를 열고, 어르신 100명에게 정성 가득한 식사를 제공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주지 법공 스님을 비롯해 남갈 스님, 문빈정사 신도 봉사자, 누리천하 자원봉사자 등 20여 명이 동참했다. 봉사팀은 삼겹살을 직접 굽고, 국과 상추 등 반찬을 정성껏 곁들여 상차림을 준비했다. 법공 스님은 “종교를 떠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단순한 식사가 아닌,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존중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후원은 (재)예수의 까라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성요셉의 집 사랑의식당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육류 섭취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고기 반찬을 드리고 싶다”는 요청에 문빈정사와 자비신행회가 후원에 나섰고,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상월결사, 훈련병 대상 수계·문화법회

6월 14일 논산훈련소서…3200여 장병 참여



상월결사(이사장 호산 스님)가 6월 14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큰법당에서 군 장병 3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대법회와 문화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계사인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법문에서 “선악의 기준은 계율이다. 부처님께 귀의하고 계를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청년 장병들이 수계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고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수덕사, 을사년 하안거 1차 포살법회

6월 12일 경내 황하정루서



조계종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6월 12일 경내 황하정루에서 ‘을사년 하안거 1차 포살법회’를 봉행하고 결제 대중의 수행을 점검했다.〈사진〉

정혜사 능인선원 유나 현전 스님을 계사로 봉행된 이날 법회에는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주지 도신 스님, 선덕 지운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과 결제 대중 250여 명이 동참했다.

수덕사는 “정기적인 결계와 포살법회를 통해 청정한 승풍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금강노인복지관 “지역과 함께 한 20년”

6월 14일 개관 20주년 행사



사회복지법인 금강(대표이사 원행 스님, 정인사 주지) 산하 금강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곽인철)이 개관 20주년과 금강노인문화센터 개관 15주년을 맞아 6월 14일 마산합포구청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복지관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미래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역 주민과 어르신,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복지관과 문화센터의 활동에 감사의 뜻을 보냈다.

대표이사 원행 스님은 “앞으로도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수국(守國) 사찰 용문사
‘수국(水菊) 축제’ 연다

6월 29일~7월 6일, 경내서

경남 남해의 유서 깊은 사찰 용문사(주지 승원 스님)가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제1회 수국사찰 남해 용문사 수국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이 활약한 ‘수국(守國)’ 사찰 용문사에서, 경내를 가득 채운 ‘수국(水菊)’의 아름다움을 시민들과 나누고자 기획됐다.

축제 기간 중 매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경내 종각 앞 특설무대에서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수국 명소로는 대웅전과 명부전 옆, 영산전 앞, 녹차밭 주변, 지장대불 인근 등이 손꼽힌다.

055-962-4425 성낙두 경남지사장

화엄사, 남부대 불교동아리 ‘시절인연’ 창립

14일 빛고을포교원서 창립법회
전남서 4번째 대학 불교동아리



불교계 청년 포교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남 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 대학생 불교동아리 결성이 잇따르며 지역불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6월 14일 광주 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 스님)에서 ‘지리산 화엄사 남부대학교 불교동아리 창립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시절인연’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불교동아리에는 지도법사에 연성 스님, 지도교수에 이철호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동아리는 총 4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동아리 창립은 화엄사가 순천대, 호남대, 광주여대에 이어 창립한 네 번째 대학 불교동아리 결성이다. 상월결사 전법 정신을 바탕으로 화엄사의 청년 포교에 대한 열정과 전법의지를 담고 있다.

지도법사를 맡은 연성 스님은 환영사에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고민을 나누는 일이 스님으로서 가장 큰 공부가 된다”며 “지금 한국불교가 위기라 말하지만, 바로 이러한 젊은 인연들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불교는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 삶이 가장 힘들 때, 가장 깊은 외로움 속에서 부처님이 여러분께 손을 내밀어 줄 것”이라며 “지금 이 인연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동아리 회장 은수민(경찰행정학과 3학년), 총무 유채민(경찰행정학과 1학년) 학생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아울러 동아리 운영을 위한 전법기금 1500만원(상월결사 1000만원, 화엄사 500만원)도 전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평화의 논에 통일쌀 심다

6월 12일 통일쌀 모내기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6월 12일 전남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일대에서 ‘2025 구례 통일쌀 모내기’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통일쌀 모내기’는 화엄사가 소유한 농지를 무상 제공하고, 스님과 노동자, 농민이 함께 ‘통일쌀경작단’을 구성해 공동 경작한 뒤 수확한 쌀을 북녘 동포에게 전달하기 위한 실천적 불사다.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늘의 모내기가 비록 당장 통일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